

지동원 선덜랜드 간다

전남 이적 동의 ... 26일 고별전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스트라이커 지동원(20)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이적에 동의하고 26일 강원과의 K리그 홈 경기에서 고별전을 치르기로 했다.

전남 관계자는 9일 "대의적인 차원에서 지동원의 이적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연봉은 9억원 수준에 이적료는 100~130만달러(약 10~14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지동원이 선덜랜드와 계약을 마치고 한국 선수로는 최연소이자 여덟 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는 선수가 된다.

애초 전남은 지동원의 선덜랜드 진출에 반대했다.

전남 산하 유소년팀인 광양제철고 출신인 지동원은 2009년 11월 K리그 드래프트에 앞서 전남에 우선 지명됐고, 2010년 K리그에 데뷔해

26경기에 나서 8골 4도움의 맹활약으로 신인왕 후보에 오르면서 전남을 이끌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인정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동원이 지난해 광

제시켰지만 마음이 떠난 선수를 더는 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구단 관계자는 "유소년 선수를 키워서 한 시즌 밖에 치르지 못하고

팀의 일원으로 6월19일과 23일 열리는 요르단과의 2012 런던 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마치고 귀국해 26일 예정된 강원과의 정규리그 홈 경기를 통해 고별전을 치를 계획이다.

이후 지동원은 7월 초 독일에서 시작하는 선덜랜드의 전지훈련 캠프에 참가해 헤르타 베를린, 뮌헨(이상 독일) 등과 시즌 개막 전에 시범 경기를 치르면서 가능성을 테스트받을 예정이다.

한편, 전남은 지동원의 공백에 따른 공격력 약화에 대안이 없는 게 고민스럽다.

시즌 중에 다른 팀에서 지동원에 필적하는 공격수를 데려오기 어렵다. 외국인 선수 정원(아시아쿼터 1명 포함 4명)도 딱 찬 상태여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후 지동원은 7월 초 독일에서 시작하는 선덜랜드의 전지훈련 캠프에 참가해 헤르타 베를린, 뮌헨(이상 독일) 등과 시즌 개막 전에 시범 경기를 치르면서 가능성을 테스트받을 예정이다.

20세 한국 최연소 프리미어리거
연봉 9억·이적료 10~14억될 듯
7월 초 선덜랜드 전훈 캠프 참가

자우 아시안게임과 올해 초 2011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자 선덜랜드가 영입 제의를 해왔다.

전남은 K리그에서 사실상 한 시즌밖에 치르지 못한 지동원이 좀 더 팀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후 지동원은 올림픽 대표

KIA-LG '진검승부'

군산에서 주말 3연전 ... 선두싸움 분수령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KIA와 LG가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프로야구의 뜨거운 6월을 주도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가 10일부터 군산월명구장에서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인기 구단 KIA와 LG의 만남이자 치열한 선두 싸움의 주인공이 만나는 만큼 이번 대결은 '군산 빅뱅'이다.

튼튼한 창과 방패, 그리고 겁없는 신에 투수들의 대결이 군산을 야구 열기로 물들일 전망이다.

LG는 올 시즌 주키치·리즈 두 외국인 선수의 영입과 함께 다승 1위 박현준의 활약으로 선발진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성공했다. 타력에 비해 힘이 떨어졌던 마운드 힘이 균형을 맞추면서 시즌 시작과 함께 상위권에서 호시탐탐 1위 자리를 노려왔다.

선발의 힘으로 2009년 우승을 이끌던 KIA의 마운드도 굳건하다.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특급 용병' 로페즈의 부활 속에 트레이비스까지 한

구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2009년의 위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심수창·주키치·리즈의 출격이 예상되는 LG를 상대하기 위해 KIA는 트레이비스·윤석민·서재응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매서워진 창과 대결도 명승부를 예고한다. 두 팀은 타율·장타율·출루율·득점 등 공격부문 1·2위를 다투며 불방망이를 과시하고 있다.

9일 현재 LG는 0.280의 타율로 가장 화려한 타력을 보여줬고 KIA도 0.273의 타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홈런도 45개 41개로 LG와 KIA가 1·2위를 달리고 있다.

곳곳에서 터지는 '한방'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베테랑 이종범·이병규의 노장투혼도 눈길을 끈다.

이종범은 지난 SK와의 주말 2연전에서 두 경기 연속 홈런포를 날리며 팀의 연승을 이었다. 9일에는 어깨 통증을 호소한 이용규를 대신해 투타자로 출전하는 등 KIA 순위 싸움에 힘

을 더하고 있다.

이병규도 LG 승승장구의 주역이다. 타율 1위 이병규는 특히 KIA전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30타수 15안타(1홈런)로 KIA전 타율이 0.500에 이른다.

신인왕 후보들의 맞대결도 팬들의 관심거리다.

KIA의 2년차 심동섭과 LG의 고졸 신인 임찬규는 배정투로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양팀 마운드의 막내다. 임찬규가 9일 현재 6승4패 1.83의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3.06 방어율 1세이브2홀드의 심동섭에 앞서지만 두 선수의 배정은 오히려 상박이다.

볼펜과 수비가 승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든든한 선발진에 비해 두 팀의 불펜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LG는 불안한 수비로 실책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동섭 홍명보호 승선

런던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이끈다

광주FC의 김동섭과 전남드래곤즈의 지동원이 런던올림픽으로 가는 홍명보호에 승선, 한국축구의 7회연속 올림픽 본선진출에 힘을 보탠다.

홍명보호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9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르단과의 2012년 런던 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경기에 참가할 23명의 대표 선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요르단과 1차전 홈 경기를 하고 나서 23일 밤 12시(한국 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2차전을 치러 9월 시작되는 3차 예선전 진출을 노린다. 요르단과의 맞대결로 런던올림픽으로 가는 첫 걸음을 떼는 홍 감독은 A대표팀에서 맹활약한 지동원과 김영권을 불러들였다.

지동원은 지난 7일 가나 A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풀타임을 뛰면서 선제골을 넣었고, 구자철(볼프스부르크)의 결승골에도 기여하는 등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2-1 승리를 이끌었다.

K리그 4골을 기록중인 김동섭은 지난 3월 27일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중국과의 친선경기에서 결승골을 뽑아내며 올림픽대표팀의 1-0의 승리를 이끈 유망주다.

이밖에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이영표(알 힐랄)의 공백을 메워줄 기대주

로 떠오른 수비수 김영권(오미야), 미드필더 윤빛가람(경남)과 중앙수비수 홍정호(제주)가 올림픽대표팀에 가세한다.

홍 감독은 애초 공격수인 남태희(발랑시엔)의 소집도 원했지만, 소속 구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올림픽 예선 경기에서는 소속 구단 동의 없이 선수를 강제로 대표팀에 차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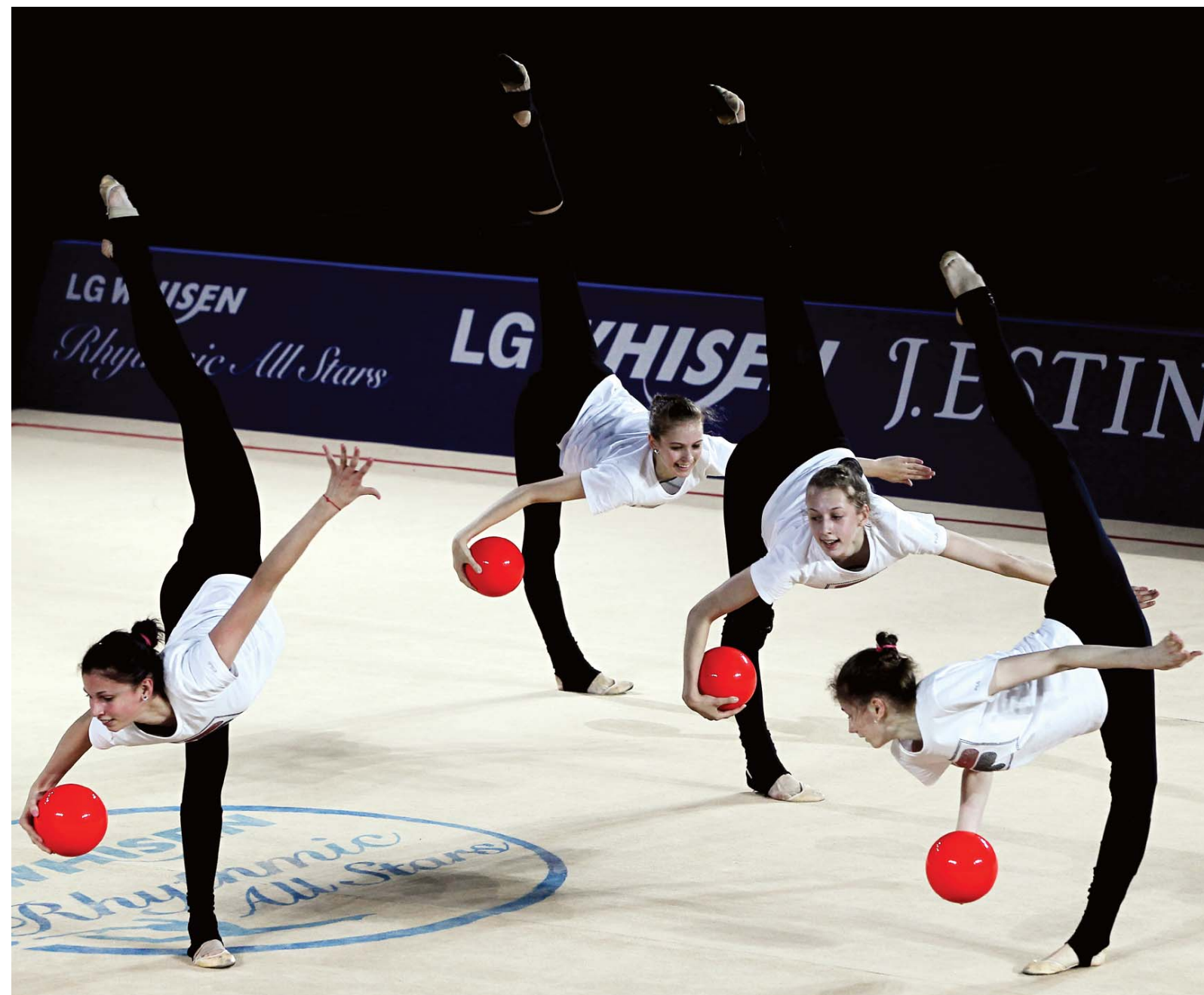
소집명단에 든 선수 중 배천석, 김영근(이상 송실대), 장현수(연세대) 등 대학생 6명은 오는 13일 오후 9시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먼저 모이고, 프로팀 선수들은 16일 오전 11시 합류한다.

◇올림픽 축구대표팀(23명)
▲골키퍼 = 이병범(부산) 하강진(성남)

▲수비수 = 김영권(오미야) 박형진(고려대) 오재석(강원) 유지노 윤석영(이상 전남) 장현수(연세대) 정동호(동토리) 홍철(성남) 홍정호(제주) 황석호(대구대)

▲미드필더 = 김영근(송실대) 김민우(사간도스) 문기환 김태환(이상 서울) 박준태(인천) 윤빛가람(경남) 이병주(영남대) 조영철(니가타)

▲공격수 = 김동섭(광주) 배천석(송실대) 지동원(전남).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연합뉴스



우아한 볼연기

9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서울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리듬체조 갈라쇼 'LG 휘센 리드믹 올스타즈 2011' 리허설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볼연기를 펼치고 있다.

야구 국가대표 훈련장 준공

13일 전복 익산시

전복 익산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야구 국가대표 훈련장 준공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익산시 부송동 종합운동장 부지(9만2140㎡)에 총 85억원이 투입돼 2009년 7월부터 건설된 이 훈련장은 정식 구장 1개와 보조 구장 1개를 갖추고 있다.

준공식에는 KBO 이용일 총재직무 대행, 선동열 전 삼성라이온즈 감독 등이 참석한다.

"리듬체조 매력 만끽을"

손연재·카나에바

러시아와 한국을 대표하는 리듬체조 간판스타인 예브게이나 카나에바(21)와 손연재(17·세종)가 한국팬에게 리듬체조의 매력을 한껏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두 선수는 11~12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리는 리듬체조 갈라쇼 'LG 휘센 리드믹 올스타즈 2011'을 이틀 앞두고 9일 치러 공개 리허설에서 우아한 몸짓과 감각적인 움직임을 선보였다.

IB스포츠는 이날 리허설에서 우크라이나 단체팀의 볼 연기, 안나 베소노바의 볼 연기, 카나에바의 리본 연기, 알리나 막시멘코(우크라이나)의 리본 연기, 손연재·이경화·김윤희의 단체 갈라쇼, 러시아 단체팀의 군무 순으로 일부를 공개했다.

Advertisement for 'Beer Party!' at Shin Yang Park Hotel. Features images of beer bottles and promotional text: 'Hot'한 여름을 'Cool'하게 날려주세요. 기간: 2011년 6월 1일~8월 31일까지. 샐러드 뷔페 이용시 맥주 및 음료가 무제한 공짜!! ₩27,500 (세금포함). 행사장소: 6F SKY LOUNGE. 예약문의: TEL. 062)228-8000 / 062)221-4130.